

할렐루야~
2021년 한해 동안 영혼 구원을 위해 수고하신 모든 선교사님들과 동역자님들에게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팬데믹이 장기화 되면서 올해도 여전히 단기선교도 가지 못하고 현장 선교를 하지 못해서 안타깝고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With Covid-19시대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면서 어떻게 현장 선교를 감당하고 주님 오실 길을 선교사님들과 함께 준비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고 계획을 세워보려고 합니다.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고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새로운 문을 만들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막2장에서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온 네 친구가 지붕에 문을 만들어 예수님께 달아 내리운 것처럼, 우리는 선교의 새 문을 만드는 창의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팬데믹 상황에 구원받아야 하는 영혼을 예수께 인도할 수 있는 새로운 문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과거의 방법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기존에 방법을 존중하면서, 전통적 방법으로 선교할 수 없다면 현재의 문제를 돌파할 새로운 방법도 찾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레슬리 뉴비긴은 교회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힘 (Church is history making force)이라고 했습니다. 은혜교회 GMI가 지금 선교의 문을 만들고 역사를 만들어가는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붕을 뚫고 문을 만든 네 친구처럼, 우리도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방향을 향해 헌신하여 선교의 새 문을 만들어서 열방에서 많은 영혼들의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은혜교회 GMI가 지금까지도 선교 역사를 만들어가는 힘이었지만, 2022년에는 또 다른 새로운 선교 역사를 만들어가는 힘이 되는 영광을 보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과 동역자님들 한해 동안 너무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

은혜교회 GMI선교팀장
안영식 목사 드림.



Merry Christmas & Happy New Year!

- 선교부 일동

편찮으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1. 스웨덴 김명자 선교사- 췌장암이 다시 발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몸속의 모든 암세포가 완전히 없어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2. 네팔 이예신 선교사- 선교사님께서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Diffuse Large B Cell Lymphoma)이라는 병이라고 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3. 터키 양창모 선교사- 파킨슨병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간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받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4. 터키 최지섭 이해영 선교사- 이해영 선교사님은 척추끝 부분 통증이 심하여 MRI 검사 결과 줄어든 암으로 인해 뼈부분이 연약하여 통증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손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5. 아르헨티나 강지애 선교사님이 유방암이 림프로 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이 고쳐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6. 강명철 선교사- 영적 전쟁에서 승리 할수 있도록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도록.
7. 이지향선교사- 척추 협착증과 발 족저근막염이 치유되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8. 김에스터/김승호 목사님: 현재로는 뇌에 혈전들이 들어가서 왼쪽 상하바신을 움직이지 못하고 왼쪽 발가락과 왼쪽 엄지 손가락은 새까맣게 피순환이 안되어 있는 상태지만 더 나빠지지는 않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기관절개 수술을 해서 그런지 모든 수치들이 아직 정상범위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수치들이 정상범위로 돌아오고 많이 회복되어 다음주에는 일반병동으로 옮겨질수 있도록 하나님의 급속한 치유의 역사가 매일 일어나고 빨리 회복되어 다시 강단에서 말씀 선포와 하나님의 기적들을 간증할수 있도록 계속 기도부탁을 합니다.



은혜한인교회 선교 소식

2021년 12월 12일

선교사 현황

53개국 321명

자체파송 74%

러시아 타타르스탄에서 '이셈메세스' (안녕하세요)



12월 5일 굽끼나센터, 정리된 발 올해는12월 초에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셈메세스 (타타르어로 '안녕하세요'입니다) 함께 마음 모아 정성껏 기도해 주시는 동역자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간 소식이 궁금하셔서 먼저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관심을 가져 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의 마음 갖습니다. 기도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며 끝까지 기도로 사랑으로 승리하는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의빛 교회 개척 소식

코로나가 심해졌지만 모임은 변함없이 진행중입니다. 저희는 성경을 많이 알지 못해도,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11 월 14 일 제 3 회 퀴즈대회를 즐겁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11 월 말부터 에젤 선교회에서 보내주신 레위기 책으로 다시 함께 공부하며 은혜로운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12 월 26 일 주일에는 성도들의 가족들을 초청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다가오는 년초 연휴가 긴데 교회 연합수련회를 계획 중입니다. 비네르와 파리트 형제님이 모임 장소인 굽끼나 센터를 잘 관리해 주시고 계시고 예전과 달리 발도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울리야나 자매가 통역중

한글학교와 대학사역

지난 11 월 6~7 일에 다른 3 곳의 한글학교 선생님들과 같이 한글학교 역사캠프를 온라인으로 하였습니다. 이번 하반기 한글학교 수업은 12 월 말까지 하게 됩니다. 대학교에서는 이번 학기 제가 총 12 개 그룹을 가르치는데 최근 카잔의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어 확진자가 생겨난 반들은 격리가 되고 이런 반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시간 중간에 식사시간이 짧아서 식사하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이번 학기에 감당할 수 있게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11월 28일 주일 예배

가정 소식

세아는 국내에서 치료를 받고 엄마와 함께 지난 11 월 27 일 카잔에 왔습니다. 그러나 수술한 다리의 무릎이 끝까지 접혀지지 않아서 휠체어를 타거나 목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년 1 월 21 일 다시 수술을 하기로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국내로 들어가는 문제가 쉽지 않아서 현재 기도중에 있습니다. 모든 기도의 동역자님들께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3회 성경퀴즈 대회 1등 알리사자매

<기도제목>

1. 타타르의 무슬림 청년들 복음화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수 있도록.
2. 사랑의 빛 교회가 기도와 말씀으로 항상 성령 충만하고 모두가 제자를 삼는 삶을 살도록.
3. 대학사역과 한글학교 사역에 지혜를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바탕이 되어지고 저와 아내가 그리스도인의 편지가 되도록.
4. 교회와 한글학교 사역을 위한 모임 장소를 위해서.
5.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자녀들의 신앙과 올바른 인격 성숙, 세아의 왼쪽 다리의 정상적인 성장을 위해서

- 주선민 & 손소미아 선교사

광 고

Amazon을 통해 GMI 선교사를 후원할 수 있습니다. Amazon account 가 있으신 분들은 smile.amazon.com 으로 로그인 하신 후, "Grace Korea Church (Fullerton)"를 찾아 설정하시면, 구입하는 금액의 0.5%가 선교후원금으로 적립되게 됩니다. smile.amazon.com/ch/95-3861464.



대한예수교 장로회 국제총회
은혜한인교회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1-714-446-6200
gkcgmiusa@gmail.com
www.gmimission.org

안녕하세요,
필리핀은 현재 우기를 벗어나 건기를 향해가고 있습니다. 날씨도 아침, 저녁으로는 시원해졌습니다.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가 1500명 선으로 확연히 줄어서 위드코로나에 좀 더 가까워진 느낌입니다. 우리 가족은 팬데믹 기간에 필리핀에서 계속해서 머물렀는데 제가 느끼는 가장 위험한 순간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찰을 것 같은 이시기에 더욱 개인위생과 방역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산속 뽕락아이따 은혜교회와 팬데믹 기간 중에 건축 완료한 5개 교회가 매 주일 기쁨의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뽕락아이따 은혜교회를 제외한 5개의 교회는 현지인 목사들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들의 생활이 어렵습니다. 사랑의 손수레와 다른 방법으로 나름대로 돕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으므로 교회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도록 기도할 뿐입니다. 앞으로 제가 건축 완료한 교회의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신학교형태의 세미나를 매달 개최하여서 그들이 스스로 자립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부족한 신학적 배경을 보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물론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빠른 시간 내에 첫 번째 세미나를 열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합니다. 사랑의 손수레가 6호까지 오픈했습니다. 한국의 떡볶이 포장마차 형태의 필리핀의 길거리 음식을 판매하는 포장마차와 집기류 일체, 초기 재료를 지원해주는 프로젝트입니다. 목이 좋은 곳은 필리핀 노동자 하루일당 이상의 수입이 발생합니다. 잘되는 곳도 있고 잠시 멈춘 곳도 있지만 가능하다면 계속해서 100호점까지 스스로 자립할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목적입니다.

하언이가 초등학교 1학년 과정을 집에서 인터넷과 과제형태로 수업하고 있습니다. 총16명의 학생들 중에서 한국인은 하언이가 유일한데 그중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필리핀 로컬학교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 모습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제목>
1.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건강히 잘 이겨낼 수 있도록.
2. 건축된 6개 교회의 부흥성장(뽕락아이따은혜, 발리바고은혜, 아뜨르볼라은혜, 뽕따은혜, 혈모사반천, 밤반은혜).
3. 사랑의 손수레 100호점 오픈 위해(현재 6호점).
4. 가족의 건강과 사랑.
5. 하언이의 학업과 성장.

- 김인수 & 황소정 선교사



베트남 이야기 (1)

샬롬~~ *^_^*
목사님과 성도님 여러분들께 베트남에서 하노이 인사드립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형통 하시고 가족분 모두 평안 하시기를 기도 드립니다. 이곳 하노이는 계절적으로 겨울에 접어들어 약간 쌀쌀한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노이 겨울은 습하고 흐린 날들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류마 티스 관절 등의 환자가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음에도 늘 관심과 기도로 동역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님들의 기도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가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방해 할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그곳에서 우리를 지켜 주시면 함께 하심을 믿으며 부족함을 무릅 쓰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
현재 베트남은 여러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있습니다. 3분기 경제가 마이너스(-2%)를 기록하고 있고 서민들은 높은 실업률 가운데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코로나 5차 팬데믹을 맞아서 10 월초 위드 코로나로 가기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방역을 완화하고 일부 (하노이 지상철 개통) 관광지를 개방하여 관광업을 활성화하려 하였으나 1달 만에 다시 확진자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12월 2일 어제는 일일 확진자 14,500명 (하노이 509명)을 넘어서고 사망 자도 210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오늘저녁 현재는 일일 확진자 14492명 (791명)이 발생하고 사망 자는200명 을 기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베트남 정부도 경제회복과 코로나 확산방지 가운데에서 많은 고민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봉쇄 방법도 1-4차 까지는 무조건 적인 지역 봉쇄로 전염병을 차단 하였지만, 5차 이후에는 아주 작은 단위로 발생 지역을 봉쇄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백신 접종율은 1 차 80%이고 2차는 70%정도입니다. 현재는 18세이하 학생들을 위주로 접종가운데 있으며 3차 부스트샷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저는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1차 접종후 후유증이 있어서 아직 2차 접종을 받지못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환자가 발생하면 중증인 경우 격리 되고 가벼운 경우에는 자가 치료와 자가격리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하노이시외 각 지자체에서는 격리 병상을 확충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전히 결혼식이나 장례식 모임등에 있어서 인원을 제한하고 (10인/20인 이하) 2차 백신 접종을 하지않은 사람은 식당이나 모임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공원과 거리 에는 운동하는 사람들이 거의없고 모임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평시처럼 회복 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베트남 하노이에서는 새로운 뉴스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10년동안 이어오던 지상철(전체 9호선 계획) 가운데 1호선이 완공되어 운행에 들어간 것입니다. 2주간의 무료시승에 이어 약 12km걸쳐서 12개 역이 개통된 것입니다. 요금은 약 편당 약 750원의 운임이 정해 졌습니다. 다만 아직 염려인 것은 하노이 시민들은 아직 오토바이를 선호하는 것과 연계된 교통과 오토바이

많은 이들이 영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막상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영성을 말하라고 하면 선뜻 답하는 이는 적다. 주어진 말씀의 속성과 체험적 실체가 동반하는 복합성을 가지고 있어서 꼭 집어 말하기가 힘들다. 실제로 영성에 대한 정의도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품성 또는 신앙의 성질, 경건의 삶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다.

보다 세밀히 말한다면 영성은 “하나님께서 개인이나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말씀으로 전해지고 이에 반응하여 깨닫고 결단하여 하나님의 심정을 삶으로 나타내는 신앙의 모습으로 내면의 체험적이면서도 영적 본질이다”라고 하겠다. 이는 하루아침에 별안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교회가 개척한 때부터 10여년간 다양한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통하여 영성이 이루어진 것을 보더라도 긴 시간을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훈련시켜 레마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 삶의 변화를 가져 오게 하는 것이다. 요즈음 영성을 위한 영성체험학교 혹은 영성훈련 프로그램이 있지만 인위적인 성격이 없지 않다고 하겠다. 진정한 영성은 하나님께서 각 개인이나 공동체의 특성을 살려 성령님으로 하여금 공급되어지는 것이고 영적으로 훈련이 되어져서 강건한 믿음을 가지게 하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신앙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반드시 말씀이 바탕을 이루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고 있어야 한다. 우리의 경우 하나님이 주신 영성은 먼저 교회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것이 각 개인에게 뿌리를 내리게 하신 것이다. 말씀을 토대로 한 굳건한 믿음과 순종(헌신)과 진실과 성결과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성이다.

이 영성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믿음의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거듭남과 구원에 도움이 되게 하시며, 헌신이 따르도록 하므로 교회에 영적인 부흥과 함께 선교의 획기적인 확장과 부흥으로 오늘의 우리의 교회를 있게 하시고, 오늘의 선교가 있게 하시면서 앞으로 더욱 부흥하라고 주신 것이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러지는 산 예배가 있고, 기도의 응답, 성령충만, 헌신이 있으며, 교회성장을 가져오며, 선교지에서도 작은 부흥이 있어 구소련인 경우만 해도 침례교, 오순절교회에는 거의 불모지인데 그곳에 현재 1000개 이상의 교회가 세워졌고 미전도지역인 인도에서도 현지인 제자들에 의해 교회들이 개척되고 있다. 이제는 지구촌을 대상으로 세계각처에 교회 개척과 자립화, 제자화는 물론, 8개의 신학교, 각 사회계층의 Christian 리더를 배출코자하는 영재학교와 각급학교가 세워졌고 세워지며 주의 뜻대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건전한 영성은 교회가 건강해지고 부흥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데 핵이 되고, 각 개인을 올바른 신앙의 길로 가게 하는 생명과 같은 영적인 자산인 것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주신 우리의 영성을 더욱 가다듬어 이 마지막 때에 제2의 복음과 선교의 부흥을 가져오게 하는 대 추수꾼들이 되어야 하겠다. 우리 모두가 순교자적인 주의 제자들이, 헌신자들이, 복음 전도자들이 되어 땅 끝까지 하나님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한다.

하나의 바램은 우리 교회가 주님이 재림하실 날까지 이 지상에 존속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써 이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가 들림을 받는 것이다. 기독교사를 보면 초대교회를 이어 확장되어 온 헤아릴 수 없는 교회들이 이 땅에 존재해 오고 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기독교사를 자세히 보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긴 세월동안 교회명이 바뀌져서라도 존속되고 있는 전통 개 교회는 극히 소수라고 할 수 있다. 원리적으로 보면 개 교회들은 끝까지 든든히 존속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의외로 교회들이 한편으로는 세워지고 다른 한편에서는 닫혀지고 하면서 엄청난 교회들이 긴 세월을 존속치 못하는 사실을 바라볼 때 웬지 나도 모르게 가슴이 아파온다.

정치적 핍박이나 재정난과 같이 어찌할 수 없는 여건이나 이유가 없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수없는 이유가 있겠지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수행치 못한 결과라고 하겠다. 문득 하나님께서 네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하신 의미를 되새기게 하신다(계2:5). 이 말씀의 역사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에 긴장케 된다.

우리는 남다른 하나님의 강한 영성을 지니고 있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는 이 귀한 영적인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후세들에게 든든히 전수하여 세상의 교회들이 어찌하던 요동치 않고, 우리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들림을 받아 하나님의 크신 상급이 있게 할 책무도 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참 믿음위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여 나가는 것이 정답일 것이다. 우리는 게으른 종이 되어서는 아니며 세상에 동화된 쓸모없는 종이어서도 아니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영성을 주신 이유가 아닐까한다.



- 김대규 장로

이곳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모든 국경을 폐쇄시켰습니다. 한 동안은 그 누구도 남아공으로 들어 올수도 나갈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남아공 정부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들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아직 긴박한 흐름이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의 아내인 최정미 선교사의 심장 점검과 치아 치료를 위해 12월 1일에 한국을 가기로 위한 준비를 하던 중에 항공사의 출항이 불가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미 한국의 숙소와 병원, 그리고 치과는 예약이 되었습니다. 정말 어렵게 까다로운 진행 절차였습니다.이번엔 딸 사람도 치아의 문제가 심각해서 동행하려고 준비했었습니다. 정미 선교사는 2년전 심장 수술후 매 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위험을 줄여주는 약을 구입함과 동시에 현재 치아 상태가 좋지 않아 4개가 발치된 상태이고 다른 하나는 시술할 의사의 의견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딸 사라는 청의 상태가 기형이나 전문의의 의견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입니다. 지금 나이가 23세인데 아직도 젖니 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라에게는 신기하고도 어른니가 하나도 없다 합니다. 평생을 젖니로 살아야 하는데 음식을 씹는 것에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말고 몇년 전에 폐혈증과 폐렴을 앓은 이후로 몸이 많이 약해져서 계속 의학적인 도움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속히 하늘의 길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만 그 동안 복용해온 약들이 1월에 끝나기 때문에 그 전에 남아공 안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 나 염려가 되는 것은 이곳의 의가 수리가 고기이고 저희에게는 의료에 대한 혜택이 1도 없기에 다소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알아 볼 것입니 다. 2021년도 성탄절을 맞아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저희 부부가 남아공의 시골 마을에서 선교하는 것을 많은 분들 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육, 교회 개척, 그리고 구제 사역 등을 하고 있는 것도 아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선교 사역을 하는 것에 비해 후원하고 돕는 교회나 후원자들이 의외로 적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 동안 저희 부부는 굶주린 아이들을 위해 지금까지 113만명의 사람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어서 먹이며 함께 기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육신의 상처를 치료해 주고, 성경적인 영상으로 복음을 전파해왔습니다. 그러나 수 년 전, 어느 날부터 저희를 후원하던 교회의 내분으로 인해 도움이 중단되어 구제 사역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정부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인근 아프리카 국가에서 온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남아공 사람이지만 출생신고도 되어있지 않아 그 어떤 혜택도 받 지 못하거나, 병원의 도움을 일체 받지 못하고 죽음을 기다리는 폐결핵, 에이즈 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나 가정을 도와 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구제 후원으로 입금되는 것은 매달 4만원이어서 가난한 가정을 정기적으로 돕지 못하고 몇 개월 동안 모아서 아주 조금씩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성탄절을 맞아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 이러한 가정들을 돕고자 여러분들의 도움을 구합니다. 이번에는 하루 5 가정을 10일 동안 방문하여 4 가족이 1개월 정도 먹을 수 있는 음식 구입 비용으로 5만원을 예산하여 50 가정에 복음과 함께 전하려고 합니다. 예산은 최소한 25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후원금이 많아지면 그만큼 도울 수 있는 불우 가정을 늘릴 것입니다. - 이은원 & 최정미 선교사
한국 소식
늘 기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 기관절개 수술 잘되었고 저녁에 중환자실에서 영상통화를 시켜주었습니다. 남편은 마취가 덜깨어 말은 못하고 제가 말하면 눈을 깜박이는것으로 의사소통이 되었습니다. 이번주말까지 지나야 전반적으로 일반병동 옮길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조금전 담당 교수님을 만나고 왔습니다.(코로나로 중환자실은 들어갈수 없습니다.) 현재로는 뇌에 혈점들이 들어가서 왼쪽 상하바신을 움직이지 못하고 왼쪽 발가락과 왼쪽 엄지 손가락은 새까맣게 피순환이 안되어 있는 상태지만 더 나빠지지는 않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기관절개 수술을 해서 그런지 모든 수치들이 아직 정상범위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말까지 모든 수치들이 정상범위로 돌아오고 많이 회복되어 다음주에는 일반병동으로 옮겨질수 있도록 하나님의 급속한 치유의 역사가 매일 일어나고 빨리 회복되어 다시 강단에서 말씀 선포와 하나님의 기적들을 간증할수 있도록 계속 기도부탁을 합니다. 너무 너무 감사 감사 또 감사합니다. - 김OOO & 김OO 선교사
중국 기도제목
긴급, 부탁 드립니다! 가까운 지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이 갑작스런 검열을 받고 문을 닫았습니다. 동시에 현재 그분의 폰 안에 있던 지인들이 호출되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런 상황이 올수 있다고 예상했기에 그 동안 문자나 SNS 사용에 각별히 신중을 기하고 동업관계 역시 적당한 거 리를 유지하며 이어 왔지만 중간에 워힌 인맥들로 인해 자칫 상황이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난의 한가운데 있는 K대표와 직원들을 위해, 그리고 저의 안전과 사업을 위해서도 손과 마음 모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 조OO & 윤OO 선교사
네팔 기도제목
<기도제목> 1. 2022년 목회자 대상 전도폭발 임상훈련 준비 2. 2022년 전도폭발 사역에 참가할 모든 훈련생, 훈련자들의 영적 무장 3.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상황을 이기고 네팔의 출입국이 자유로와 지도로 4. 1월말 수료 예정인 그레이스 인카운터 카트만두 2기에 참가 중인 현지인들이 성령충만함으로 완주 하도록 5. 동역하는 현지 목회자들의 사역과 가정, 신실한 믿음의 동역을 위하여 6. 효과적인 비거주 자비량 선교를 위한 지혜 건강 재정을 위하여 - 하이디 오 선교사

보관소 등의 미비로 아직까지 이용율은 높지 않아서 이러한 점을 보완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사역 소개 전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온것 같습니다. 베트남에도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사람들과의 만남을 기피하고 전염병 확산 방지라는 이유로 모임에 제한을 받게 됨으로 예배와 성도간의 교제에도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하고 가정 예배로 전환함으로 신앙의 토대를 시험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교육과 선교사업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 하였습니다. 참 신앙인인 기독교인들이 배척 당하고 두려움을 동반한 세상 어둠의 세력들이 하나님 나라를 업신 여기는 지경에 왔습니다. 인터넷 상에서는 기독교인을 욕하는 것이 마치 의인이 된 듯 정의를 외치는 듯 흥내내는 시대가 된것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믿는 자들이 본을 보이고 정직을 행하며 공의를 행하여야 함에도, 불의와 타협하고 거짓을 말하며 세상을 쫓음으로 세상의 질타의 대상이 된것은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베트남은 통계적으로 54개의 민족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민족은 약 87%정도 입니다. 나머지 13% 가운데 53개의 작은 소수 민족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높은 복음 화율은 보이는 민족은 호명 족입니다. 약 70%의 복음 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류인 민족은 인구 분포상 대부분 점유율을 가지고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 복음 화율은 1%에도 미치지 못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큰 영향을 끼칠수 있는 그리고 인구수도 가장 많음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 복음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아닌 곳으로 가야 할수밖에 없는, 그 사실을 먼저 믿는자로서의 사명을 알기 때문에 더욱 마음 아픕니다. 봄이 오면 한국의 개나리 유채꽃 향기와 들판의 봄향기 그리고 농부들의 씨 뿌리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여름 이면 푸르른 산들과 팔팔 흘러내리는 계곡이 맛있는 참외와 수박이 그리워 집니다. 가을이면 빨갛고 노란 단풍들과 누런들 오곡백과가 그리워지고 아한 갈대밭이 그립습니다. 겨울이면 첫눈이 내리는 것과 길거리의 어묵, 호떡이 그립습니다. 그렇지만 베트남 하노이 북부 지역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온도 외에는 늘 푸르름으로 가득 차기에 변화를 거의 못 느낍니다. 마치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 같음에도 큰 변화와 부흥이 없음에 슬픔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가 1년의 선교 훈련 과정을 마치고 베트남에 온지도 이제 5년이 지났습니다. 오랫동안 스기하신 선배님들을 보면 존경과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관심 주시고 후원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깊이 감사 드립니다. 한국에서든 해외에서든 장소를 가리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일은 영광된 일이기도 하지만 외로운 길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인생은 한날 훗으로 돌아가는 과정이요, 여름 날의 풀같이 성하였다가 가을의 (북부 라오까이 도서배포) 풀같이 스러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 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으려 하다가도 어느덧 부족한 인간의 모습, 나 자신을 봅니다. 주님을 따라 선허게,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전하기 위해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을 욕하는 세상 사람들과 핍박하고 복음을 막는 사람들을 보면 속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대할때면 불쌍함과 안타움을 느끼게 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 보지마라/ 나를 따르라”(눅 9:57-62)는 말씀을 다시 새깁니다. 기경할 땅도 많고 씨를 뿌려야할 곳도 많은데 벌써 들판은 희어져 추수할 때가 이르러 진것 같습니다.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마 9:38)는 말씀에 뒤를 돌아 볼수 없습니다. 베트남은 추수할 곡식이 많습니다. 거두지 못하면 불에 태워 질 것입니다. 요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지향점이 달랐습니다. 요나는 민족전인 감정과 개인의 감정이 우선 하였지만, 하나님은 니느웨성의 모든 사람과 육축까지도 아끼셨습니다(욥4:11). 현지 사역자들과 이야기를 하다보면 늘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소수민족을 복음화 하기위해 출장을 가야 하고 자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럴때 마다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먼저 가까운 친척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현지 사역자들은 가까운 곳은 제쳐두고 먼곳에 선교한다고 합니다? 이럴때 저는 그들에게 다시 상기시킵니다. 당장 내 옆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자고 합니다. 소수민족은 50~70%인데 여러분은 1%로 되지않는다는 사실을 주지 시킵니다. 스스로 자립 하고 자전 할수 있는 곳은 그들에게 맡기고, 아직 씨도 뿌려보지 못한 여러분의 가까운 곳에 먼저 복음의 씨를 뿌리자고 합니다. 베트남개신교의 역사는 1911년 미 합중국의 선교로 다낭지역에서 시작 되었습니다. 2021년 현재 11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화율은 1%를 밑돌고 있습니다. 들판은 희어져 오는데, 뿌릴 씨도 뿌릴 땅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픕니다. 하물며 주인의 마음은 어떨까요? 주인되신 전능하신 주님의 마음은 우리 에게 채찍을 가하는 것 같습니다. 힘내라고! 같이 추수하자고. 하십니다. 요즘 저희는 한글 수업 과 도서 보급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우리는 누구이며 종착지가 어디인지? 영원한 생명을 위해 길을 여신 분은 누구 신지 그 길을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소개하는 기초적인 전도 책임니다. 그런데 그 책을 어렵게 나누다 보면 어떤 사람은 그 책을 귀하게 생 각하고, 어떤 사람은 가볍게 생각합니다. 당장 눈앞에 궁핍과 경쟁이 있음으로, 다가오는 장래일, 종착역은 바라볼 수 없고 현실은 더 가 까이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전히 전해야하고 또 전하여야 함을 믿습니다. 들판이 희어져 올수록 더욱 열심을 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병원균이 그분의 사역을 방해할지라도 우리 는 거기에 주눅들지 말 고 더욱 힘을 내고 왕이신 그분, 생명 이신 주님을 전해야 함을 믿습니다. 오늘도 어느덧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우리 모두의 자리 에서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갑시다. 늘 힘 주시는 하나님과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늘 강건하시고 평안 하시길 기도합니다. 모 든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립니다. <기도제목> 1. 베트남이 복음화 되고 기독교가 부흥 하도록. 2. 모두가 안전할 수 있도록 비자문제가 잘 해결 되도록. 3. 아내가 지치지 않으며 아프지 않도록. 4. 코로나가 사라져 일상 생활로 돌아 갈수 있도록. - 이원재 & 장창선 선교사
 

안녕하세요, 저희들은 10월21일 인도에 잘 도착했습니다. 뿌연 안개와 매케한 공기로 목이 따가와 오는 것이 인도에 왔구나 했습니다. 이 은혜의 땅을 밟을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기도가 있었는지요. 감개무량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도의 상황
폐허가 된 듯한 집과 센터를 청소하고, 학생들과의 통화를 시작으로 일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센타는 주변에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좀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센타의 안전을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인도의 코로나는 많이 안정이 된 듯합니다. 거리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델리 부근의 도심지역의 교회는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부터의 회복과 인도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수업시작
내년 2월, 5기와 6기는 안전수칙을 지키며, 조심스럽게 수업을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부하는데 적당한 거리를 두고 앉아서 온라인 오프라인 수업을 하고, 소독이나 마스크 착용등을 실시하면서 모이려고 합니다. 기존의 5기 학생들과 1님이 예비하신 6기 학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GIGL
내년 2월말에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GIGL을 하는 일은 본사에서 오셔야 해서 전자비자나 원활한 정기 항공선이 열려야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GIGL을 필두로 일들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GIGL은 신학교 신입생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GIGL은 행사 그 이상입니다. 팀멤버인 졸업생들에게는 일 년간 자신들의 사역들을 나누는 감사의 시간이고, 함께하는 기쁨의 시간입니다. 또한 만남으로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GIGL은 그들에게 우산과 같은 역할입니다. 내년 2월의 GIGL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마을개척
마을개척 일들은 힌두당이 집권하고 있는 곳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당이 집권하고 있는 곳은 좀더 전도가 자유롭습니다. 기간은 다르지만 각 주마다 내년 2월까지 있을 선거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힌두정권이 물러나면 마을 방문들이 좀더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저희들은 선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을방문 일들로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위로부터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알리사 아들
편잡지역의 알리사의 1살배기 아들이 죽었습니다. 10월22일, 알리사는 다급하게 아들의 머리와 가슴에 인פק션이 있으니 기도해 달라는 개인 문자를 보내왔고, 그후 아들이 죽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주님께서 그들 가족 모두를 위로해 주시고,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설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판카즈
운나우 지역의 판카즈에게 교회 건축을 위해 필요한 것을 전달했습니다. 성령충만함으로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사역과 복된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강선생
강선교사의 우울증은 한국에서는 거의 나은 듯 괜찮았는데 인도에 도착해서는 많이 힘들어 합니다. 우울증이 떠나가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충만함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 또한 허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주님만 의지하며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로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평안하심과 성령충만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 강명철 & 이지향 선교사

2021년 마지막 달 12월의 시작을 알리는 아침에 선교관 숙소 창밖으로 짙은 안개가 깔려있는 모습이 선교지에서는 볼수 없는 광경이기에 신기하기만 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기도와 물질로 응원해 주신 선교 동역자님들 덕분에 이제 암수술 2달반이 지나면서 많이 회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옆에서 선교사 남편을 간호하느라 아내 Grace 선교사가 수고가 많았습니다.

암수술 2달 후 혈액검사를 통해 아무 이상이 없음이 확인되고 코비드 부스터샷도 맞았습니다. 한달 가까이 누워있다 보니 많이 손실된 근육이 아직 회복이 안되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주차장을 걷는 것이 힘에 겹지만 하루 하루 다르게 건강이 회복되고 있어 주님과 기도로 함께 해주신 선교 동역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1월 11-20일까지 잠시 선교지 파나마를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선교지에서 선교사를 위해 염려하며 사랑으로 기도해 준 선교지 동역자들에게 직접 만나 안부를 전하고 앞으로 3-4개월 더 선교지를 떠나 있어야 하기에 그리고 12월 교회 행사들을 준비하는 7개 지교회들을 돕기 위해 파나마 선교지를 다녀왔습니다.

파나마는 이제 코비드19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습니다. 하루에 감염자가 100여명이 나오고 있고 아직 우기철이라 비가 오지만 곧 건기철이 돌아오기에 12월에는 외부활동에는 마스크를 해제한다고 합니다. 선교본부인 Yaviz마을과 정글교회들은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관계로 몇달째 코비드 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 거의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어 마치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느낌입니다. 아마도 이런 위기상황은 도시보다는 이런 정글지역이 더 유리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정글 교회들을 방문하며 그동안 기도해 준 성도들을 보면서 힘이 솟습니다. 특별히 선교사 대신 선교지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폴로목사가 그동안 사역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짧은 일정으로 선교지 방문을 통해 주님께서 내년부터 많은 사역들을 예비하고 계심을 경험합니다.

정글 콜롬비아국경쪽으로 복음이 더욱 빨리 확장되기 위해 펜아메리카도로가 연장되기를 기도해 왔는데 제가 방문중인 16일 오전 10시에 Yaviza에서 Pinogana(선교부 베다니교회가 있는곳, 펜아메리카도로가 교회 옆으로 지나갈 예정) 마을까지 펜아메리카도로가 건설 되는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초대장이 왔는데 저는 그날 정글 교회들을 방문하는 스케줄로 인해 참석을 못했습니다. 펜아메리카도로는 알라스카에서 시작되어 카나다를 거쳐 미국 서부 1번도로를 지나 중미를 지나고 파나마 선교부가 있는 Yaviza 마을에서 12,580km가 끝이 납니다. 이 도로가 완공 되려면 다리 2개가 건설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Pinogana마을까지 배로 한시간 넘게(현지인들은 통나무배로 3시간) 걸렸는데 이제 도로가 완공되면 10분이네로 갈수가 있습니다. 이 구간이 완공되면 계속해서 콜롬비아국경으로 도로가 건설되리라 예상됩니다. 중남미 역사상 한번도 중미와 남미가 연결되는 80km의 정글지역 도로가 게릴라와 마약의 통로로 이용될까봐 뚫리지 않았습니다. 6년전부터 교회와 현지 동역자들에게 이 도로가 열리면 파나마, 콜롬비아, 베네주엘라를 잇는 바이블루트를 만들어 육로로 복음을 베네주엘라까지 전하자고 기도해 왔는데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날을 생각하면 지금도 선교사의 심장이 요동을 칩니다.

Darien주의 선교부가 있는 Yaviz마을은 5-6년전부터 소말리와와 아이티,쿠바인들의 난민들이 통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Darien주는 남미에서 북미로 통과하는 유일한 지역이기에 Darien Gap (인터넷으로 서치하면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으로 불려왔습니다. 처음 이 지역을 통과한 난민들이 계속 가족들에게 이 루트를 소개하면서 해마다 난민의 숫자들이 늘어나 작년 한해 이 지역을 통과한 난민들의 수는 약 3만명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2-3년전부터 베네주엘라 사태로 인해 많은 베네주엘라인들이 이 지역을 통과해 북미로 향했습니다. 가끔 길가에서 만난 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정글 지역을 통과해 Yaviza마을까지 도착하기까지 많은 난민들이 강도와 강간,질병, 독충등으로 희생되고 정글에서 길을 잃어 헤어지는 가족 이야기등 우리가 상상 못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해마다 3-5만명이 이 DarienGap를 통과하는데 파나마 정부에서도 이들 난민들로 인해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해 올해 정글에 유엔의 도움으로 난민촌을 건설했습니다. 국경 수비대에서 이들 난민들의 수용기간 동안 이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우리 선교부에 난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도움을 달라는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들 난민은 이곳에 1-2개월 머물다 파나마 정부에 의해 코스타리카(파나마 북쪽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나라)국경까지 혹은 난민 심사를 거쳐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은 미국 대사관을 통해 미국으로 이동이 됩니다.

오랫동안 바이블타임을 국경 수비대에 공급하면서 좋은 관계를 맺어 왔는데 이를 보고 요청을 한것 같습니다. 이미 현지 동역자 폴로목사가 난민 수용소를 방문해 사역 할 모든 허가 절차등을 우리 선교부가 등록한 NGO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글 교회들을 개척하면서 이 난민들에 대해 관심을 못가졌는데 이제 주님의 때가 되니 이렇게 저희에게 이들을 위해 사역할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먼저 스페니쉬,영어 바이블타임(매일 읽는 성경 소책자)을 통해 난민들에게 난민촌에 머무는 동안 복음을 전할 예정 입니다. 선교사가 미국으로 돌아오기 위해 파나마시로 올라와 머무는 동안 파나마시에서 묵회하며 자주 우리 선교지 교회들을 방문해 말씀을 전하고 선물들을 전하며 동역하는 미란다목사님으로 부터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대사관에 근무하는 유대인 한분이 미란다목사님을 통해 우리 선교부 사역 이야기를 듣고 우리 베다니교회가 있는 인구 1,500정도인 정글 Pinogana 마을에 강물을 정수해 쓸 수 있는 정수기를 기증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나라로 오래전부터 바닷물을 정수해 쓸수 있을 정도로 정수 기술이 뛰어난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서 만든 정수기를 한 마을이 쓸 수 있는 용량의 정수기를 기증받으면 그동안 강물을 식수로 쓰던 마을에 정수된 물을 마시게 됩니다.

선교사는 내년 2월에 다시 선교지로 복귀할 예정으로 이곳 미국 엘에이 은혜한인교회 선교관에서 기도하며 건강 회복에 힘쓰고 있습니다. 파나마 Darien지역 인디안 영혼들을 위해 그리고 선교사 건강과 회복을 위해 지금까지 기도와 물질로 함께 동역해 주신 모든 선교 동역님들 그리고 교회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2022년에도 선교사가 건강을 회복하고 선교지에 복귀해 주님께서 준비한 많은 사역들을 현지 동역자들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기도 제목>
1. 선교사가 건강이 회복되어 내년 2월에 선교지로 복귀 할 수 있도록 (암이 재발되지 않도록)
2. 매달 마지막 한주 공부하는 온라인 GMI파나마신학교를 통해 목회자들이 지도자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3. 파나마,콜롬비아,베네주엘라를 육로로 통과하는 바이블루트를 통해 복음이 정글 깊은곳까지 전파 되도록.
4. Darien정글 난민촌에 거주하는 난민들에게 복음 전도 열매가 맺히도록.
5. 이스라엘대사관에서 기증하는 정수기가 PinoGana마을에 잘 설치될 수 있도록.
7. 내년 선교사가 Panama선교지에 복귀 해 중단된 La Palmera마을 Gracia교회 건축이 완공 되도록.

- 김재한 & Grace Kim 선교사



(폴로목사가정 방문) (배를 몰고 정글교회방문) (PinoGana마을 베다니교회)